

韓經 밀레니엄 포럼

# 最近 輸出入 動向과 對策

2001. 5. 29

産業資源部

## < 목 차 >

I. 國內外 經濟動向 .....	1
II. 최근 輸出入 動向 및 展望 .....	4
III. 주요 推進對策 .....	7
1. 成長市場 및 既存市場에 대한 輸出마케팅 강화 .....	7
2. 通商摩擦에 적극 對應 .....	9
3. 輸出競爭力 제고를 위한 制度改善 .....	10
4. 交易規模 擴大에 대비한 新무역인프라 확충 .....	11
5. 새로운 수출유망분야 육성 및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.....	13

# I 最近 國內外 經濟動向

## 1. 世界 經濟

□ 미·일 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산

- 미국경제는 IT부문의 위축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이후 급속히 둔화
  - 1/4분기 성장율(잠정치)이 당초 예상(0~1%)보다 높은 1.3%로 발표되는 등 긍정적 지표도 있으나,

\* 미GDP증가율(%): (00.1/4) 4.8 → (2/4) 5.6 → (3/4) 2.2 → (4/4) 1.0 → (01.1/4) 1.3

- 소비자신뢰지수의 하락 등 부정적 지표도 혼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

\* 소비자신뢰지수: (1월) 128.6 → (2월) 109.2 → (3월) 116.9 → (4월) 109.2

- 일본은 내수 및 해외수요의 부진으로 산업생산과 수출(달러기준)이 지속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

\* 산업생산증감(%): (1월)  $\Delta$ 1.1 → (2월) 1.9 → (3월)  $\Delta$ 2.1 → (4월)  $\Delta$ 2.9

\* 수출 증감(%): (1월)  $\Delta$ 7.0 → (2월)  $\Delta$ 8.6 → (3월)  $\Delta$ 5.7 → (4월)  $\Delta$ 15.5

- 최근 고이즈미 내각 출범으로 강력한 금융·기업 구조개혁 추진 기대

- 주요 경기전망기관들은 미·일 경기둔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 세계경기과 교역규모 전망을 하향 조정

\* IMF(%): 세계GDP성장율(당초 4.2→수정 3.2), 세계교역량(7.8→6.7)

\* OECD(%): OECD국가성장율(당초 3.3→수정 2.0), 세계교역량(9.7→7.2)

□ 반면, 중국은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7.0%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되며

- 중남미(브라질 4.5%), 중동(2.9%) 등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

- 유로경제 또한 2.4%의 성장이 예상되어 미국(1.5%)을 능가할 전망

## 2. 國內 經濟

### ○ 생산 · 소비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투자는 계속 부진

\* 산업생산 증가율(%) : (00.12) 4.7 → (01.2)8.8 → (01.3)6.2 → (1/4)4.9

\* 설비투자 증가율(%) : (00.12) △2.2 → (01.1) △8.8 → (01.3) △5.1

### - 금년들어 회사채신속인수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가시화로 자금시장이 호전되고 체감경기도 다소 회복세

\* 회사채신속인수: 회생가능 판단기업중 일시에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데 따른 유동성 애로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회사채 인수

- 조건 : 대상기업이 20% 흡수, 산은이 시장실세금리로 80% 인수

- 대상 : 협의회(산은, 채권은행, 신보)에서 심사, 만장일치로 선정  
현대전자 · 건설 · 상선, 고려산업개발, 쌍용 · 성신양회

\* 韓銀 소비자대지수 : (00.2/4) 113 →(3/4) 102 →(4/4) 96 →(01.1/4) 107

\* 전경련 BSI : (00.12) 68.0 →(01.1) 62.7 →(2) 83.0 →(3) 102.4 →(4월) 107.7

### ○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주가와 환율은 보합세

\* 주 가(p) : (00.12말) 504.6 → (01.2말) 578.1 → (01.5.25) 624.1

\* 환율(₩/\$) : (00.12말) 1,265 → (01.2말) 1,251 → (01.5.25) 1,280

### ○ 수출은 1/4분기중 2.2% 증가하였으나 3월 들어 IT제품 수출부진 심화로 2.0% 감소세로 전환된 후 4월에도 9.9% 감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

- 4월까지 무역수지는 경기둔화,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입감소 (△5.7%)의 영향으로 30.8억불의 흑자 기록

### 3. 세계통상환경 급격한 변화

#### ○ 세계 경제의 Globalization 가속화

- 글로벌 경영활동 확산으로 각국의 貿易依存度 심화  
\* OECD국가 무역의존도: (70년대) 13% → (90년대) 20%

- 협력 범위의 전방위적 확대: 貿易 + 投資·技術·서비스 등

#### ○ WTO 뉴라운드 협상재개시 新國際貿易秩序 형성의 본격화

- \* '01.11월 WTO 각료회의(카타르 도하)에서 본격화될 가능성

#### ○ 地域主義의 확산

- 90년대 이후 경제블록화의 경쟁적추진 → 域外國에 貿易障壁

- \* 지역협정 : NAFTA, EU, MERCOSUR(남미공동시장), ASEAN
- \* 지역협정 미가입국은 한국, 중국, 일본뿐임
- \* 현재 전세계적으로 214건의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중

#### ○ 東北亞經濟圈 부상

- 동북아경제권이 미국, EU와 함께 세계 3대경제권으로 부상  
\* '00년 3국의 경제규모: 7조달러(세계경제의 1/4, EU·NAFTA에 근접)
- 中國의 WTO 가입 추진

#### ○ 각국의 輸入規制 강화

- 선진국 개도국 모두 수입규제를 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  
\* 현재 23개국, 115건 對韓 수입규제중
- 최근에는 개도국의 반덤핑제소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
\* 개도국의 제소건수 : ('96) 6 → ('98) 15 → ('99) 23 → ('00) 20

## II. 最近 輸出入 動向 및 展望

### 1. 輸出入 動向

(통관기준, 억불, %)

구 분	2001년			2000년	
	1-3월	4월	1-4월	4월	1-4월
수 출	401.2 (2.2)	121.8 (△9.9)	523.0 (△0.9)	135.2 (17.6)	527.9 (26.4)
수 입	380.3 (△2.1)	111.9 (△16.1)	492.2 (△5.7)	133.5 (46.6)	521.8 (50.5)
무역수지	20.9	9.9	30.8	1.7	6.1

\* ( )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

□ 4월중 輸出은 122억불(△9.9%), 輸入은 112억불(△16.1%)로 수출입 모두 3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

○ 4월 수출감소세는 99. 2월(△16.8%) 이후 최대 감소폭

□ 貿易收支는 9.9억불 黑字를 기록하여 흑자 기조 유지

○ 4월까지 무역수지는 30.9억불 흑자 기록(전년동기대비 24.6억불 증가)

#### <최근 輸出 부진요인>

#### ① 미국·일본 등 주력시장의 경기둔화 및 수입수요 감퇴

- 미국: 대미수출 (01.1~4월) 104.9억불 (△3.0%)  
경제성장률 (00년) 3.4% (01.1/4분기) 1.3%

- 일본: 대일수출 (01.1~4월) 62.0억불 (△3.7%)  
경제성장률 (00년) 1.7%

② 반도체 · 컴퓨터 수출부진 지속

- 반도체 수출이 1월 18.0억불(△1.7%) → 4월 12.8억불(△33%)로 격감

	반도체	1월	2월	3월	4월
(00) 수출(억불,%):		18.3(17.1)	17.1(17.1)	18.9(18.0)	19.0(30.2)
· 64MD(\$/개):		8.68	6.67	5.93	6.58
(01) 수출(억불,%):		18.0(△1.7)	15.6(△9.1)	15.3(△19.2)	12.8(△33.0)
· 64MD(\$/개):		3.19	2.80	2.34	2.40

- 컴퓨터도 1월 9.8억불(△20.8%) → 4월 8.0억불(△25.8%)로 감소

\* 컴퓨터 수출(억불,%) : (1월) 9.8(△20.8) → (2월) 10.0(△6.0) → (3월) 10.3(△11.4) → (4월) 8.(△25.8)

\* 15인치 LCD(\$/개) : (00.3)540 → (00.12)402 → (01.3)300 → (4월) 280

③ 수요부진 및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섬유류(△9.4%), 철강제품(△4.1%), 석유화학(△1.7%) 등 주요품목 수출부진 지속

\* LDPE(\$/톤) : (00.9) 785 → (00.12) 680 → (01.3) 670 → (4월) 650

\* 아연도강판(\$/톤) : (00.6) 505 → (00.12) 385 → (01.3) 365 → (4월) 365

< 최근 輸入 감소요인 >

① 수출부진으로 반도체(△9.1%), 전자부품(△11.4%)등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도 함께 크게 감소

\* 수출용 수입(%) : △3.5(1월) → 4.7(2월) → △11.3(3월)

\* 내수용 수입(%) : 0.7(1월) → 5.9(2월) → △7.4(3월)

② 설비투자 위축, 경기둔화로 일반기계(△18.6%), 중전기(△8.2%) 등 시설재 수입의 감소세 지속

\* 설비투자증감율(%) : (00.10) 22.2 → (11월) △1.1 → (12월) △2.2 → (01.1) △9.2 → (2월) △4.9 → (3월) △5.1

③ 유가하락으로 원유수입도 두 자리수 감소세 지속

\* 원유수입(억불,%) : (1월) 20.9(△3.0) → (2월) 24.9(29.5) → (3월) 17.9(△13.8) → (4월) 16.5(△17.6)

## 2. 評價 및 向後 展望

□ 최근 輸出부진은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미국,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와 IT 수요위축에 기인

○ 주요 수출국인 일본, 미국의 수입이 큰 폭으로 둔화

\* 일본수입증가율(%) : (1월) 12.0 → (2월) 1.1 → (3월) 0.4 → (4월) △3.3

\* 미국수입증가율(%) : (1월) 15.7 → (2월) △0.4 → (3월) △0.2

○ 일본, 대만,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도 감소세

\* 일본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7.0% → (2월) △8.6% → (3월) △5.7% → (4월) △15.5%

\* 대만수출증가율(%) : (1월) △17.0% → (2월) 12.1% → (3월) △1.8% → (4월) △11.3%

\* 싱가포르수출증가율(%) : (1월) 14.9% → (2월) 8.9% → (3월) △1.8%

○ 반도체·컴퓨터와 인도 스케줄이 불규칙한 선박을 제외한 품목의 輸出증가율은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
\* 3품목 제외 증가율(%) : (1월) 0.8 → (2월) 6.4 → (3월) △0.6 → (4월) △2.9

\* 자동차(5.4%), 일반기계(27.8%), 무선통신기기(12.4%) 등 수출 호조

□ 미국·일본의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업계도 중국·중동·중남미·EU 등 成長市場에 대한 수출마케팅 노력을 강화

○ 미국(△3.0%), 일본(△3.7%), 아세안(△11.9%) 지역 수출은 부진한 반면, 중국(11.1%), 중남미(16.5%), 중동(3.8%) 지역은 호조세

○ 컴퓨터(△16.2%)도 미국(△25.1%), 일본(△19.1%) 지역은 부진한 반면, EU(6.1%), 중남미(1.6%) 지역 수출은 호조

○ 가정용전자(△4.3%)도 미국(△5.2%), 일본(△5.3%) 지역은 부진한 반면 EU(6.4%), 중동(10.5%) 지역은 호조

□ 향후 수출증가세는 2/4분기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며, 미국·일본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이후 회복 전망

\* 금년 1/4분기 미국 성장률이 1.3%를 기록하여 예상치(1%)를 상회

### Ⅲ. 주요 推進對策

#### 1. 成長市場 및 既存市場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

- 중국·중동·중남미·유럽 등 成長市場을 중심으로 市場 開拓活動 강화
  - 고위급 「민·관 합동 무역사절단」을 집중 파견하여 마케팅 외교활동 강화
    - 대통령님 중남미지역 순방 추진 (하반기)
    - 총리 무역사절단, 중동 4개국 순방(5월)
    - 중국·중동·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플랜트·IT 시장개척을 위한 12차례의 무역사절단 파견
      - \* 산자부장관, 중국(4월), 미국(6월) ; 정통부장관 중동(4월) ; 통상교섭본부장, 이집트 등 아프리카(4월) 등
  -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
    - \* 전시회 참가 : 111회(2,650개사)
    - \* 시장개척단 파견 : 78회(1,500개사)
    - \* 상품구매단 유치 : 31회(680개사)
  -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기능 보강(6월)
    - 지사화사업의 확대(600개→1,000개)를 위해 인력 추가배치(22명)
    - 수출마케팅 수요가 큰 지역(자카르타 등 13개 무역관) 및 미개척 신흥시장 무역관 확충(카자흐스탄)

○ 아프리카·중동 산유국 및 중남미에 대하여 플랜트 수주활동 집중전개

- 플랜트 수주목표(전체): (00) 84억불 → (01) 100억불

-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강화 : (00) 4.2조원 → (01) 6.0조원

- 종합상사·중공업·건설업체 등으로 「플랜트수출협의회」를 구성(3.28)하여 수주경쟁 합리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

#### □ 미국·일본 등 既存市場에 대해 기계류, 부품 등 틈새시장 개척

○ 자동차부품 등 부품류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

- 對日 자동차부품(4월), 對美 금형(6월) 등 시장개척단 집중 파견

- 미 자동차 Big3 부품구매망(COVISINT) 활용 설명회 개최

○ 美 정부조달시장, 日 전력기자재시장 등 틈새시장 발굴지원 확대

○ 김치, 굴 등 유망수출농수산물의 일본 시장 진출 추진

#### □ 中小·벤처기업에 대한 輸出保險 및 金融支援을 강화

○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의 확대

· 총 보험인수 규모 : (00) 36조원 → (01) 41조

· 중소기업 지원비중 : (00) 15.5조(42%) → (01) 18.5조(45%)

○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험분담(7:3)을 통해 무역금융을 지원(01년 : 500억원)

## 2. 通商摩擦에 적극 對應

- 미국의 경기둔화 및 사상최대의 무역적자 기록 등을 고려할 때 Bush 신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지속할 전망
  - \* 무역적자 : (2000년) 4,495억불 (2001년 전망) 약5,000억불
- 또한, EU와의 조선분쟁이나 최근 중국과의 마늘 수입문제 등에서 보듯이 올해 주요국과의 통상환경은 악화될 전망
-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추진
  - 중국에는 4월에 산자부장관을 단장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마늘분쟁으로 불편해진 양국 통상관계를 정상화
  - 미국은 자동차·반도체·철강 통상사절단 파견(6월) 및 한·미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Bush 신정부 출범 초기에 통상협력의 틀을 확립해나갈 계획
  - EU와의 조선문제는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환경규제·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화
- 다만,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
-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
  - 민관으로 구성된 「수입규제대책반회의」를 통해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, 업종별 공동 대응방안 수립
  - 기업들의 수입규제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「수입규제 정보네트워크」, 「수입규제 Academy」 등 활성화

### 3. 輸出競爭力 提高를 위한 制度 改善

#### □ 輸出금융의 원활화

- 재판매보험 담보부 외상매출채권 매입제도의 도입
  -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재판매 보험을 인수하고 이를 국내은행의 현지지점이 매입
    - \* 기업대상 시책설명회 기개최 (수출보험공사, 5.3)
-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의 도입
  - 수출보험공사와 은행이 보증분담을 하고 은행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

#### □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資本財 수입 확대 및 경쟁력기반 강화

- 시설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「산업기반기금」 금리 조정
  - \* (00년) 연 7.0% → (01년) 6.0%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」 금리 조정
  - \* (00년) 연 5.5% → (01년) 5.25%
- 6월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(10%)의 6개월 추가연장

#### □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등 업계건의사항 적극 개선

- 경영이 건전한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200% 적용대상에서 제외
- D/A를 신용공여한도 대상에서 일정기간 유예하여 은행의 D/A 매입확대 도모 검토
-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지급보증을 현지법인별 관리에서 모기업단위 관리방식으로 개선 추진

#### 4. 交易規模 擴大에 대비한 新무역인프라의 확충

##### □ 電子貿易(사이버무역)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

###### ○ 전통무역의 IT화를 통한 輸出擴大 및 부대비용 절감

- 무역정보에서부터 종합적인 수출전략까지 컨설팅하는 종합 무역정보 네트워크를 구축
- 실크로드21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개편하고 電子貿易仲介機關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확산을 적극 지원

###### ○ 인터넷에서 계약·통관·결제·물류 등 국가간 전무역절차가 가능한 「汎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」 구축 추진

- \* 한·중·홍콩·싱가폴·대만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전자 무역 네트워크(Pan Asian E-Commerce Alliance) 주도적 참여

###### ○ 「電子貿易 育成 綜合政策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 (5.28, 대외 무역법 근거)

-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 16대 과제 추진

##### □ 貿易展示施設의 확충 및 展示會 수준의 질적 제고

###### ○ 부산(5월)·대구(4월)전시장 완공 및 고양국제전시장(일산) 착공(12월)

- \* 무역전시장 : (00) 7개 21천평 → (03) 10개 54천평

###### ○ 섬유·전자·기계 등 8개 업종의 국내전시회를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로 집중 육성(금년부터 3년간 100억원 지원)

###### ○ 「展示會認證」 및 「전시기획사 제도」 등의 도입을 추진하여 유망전시회 발굴 및 고급인력의 무역전시부문 유입 촉진

## □ 良質의 貿易專門人力 양성체제 구축

### ○ 中小 輸出業界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

-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“외국어 및 무역실무교육”을 확대
- 무역전문 인터넷 교육기관인 사이버무역연수원을 「중소무역업체 再教育의 場」으로 육성 (연간 4,000명)

### ○ 우수한 靑年人力의 무역업계 유입 촉진

- 우수 대학생 50명을 선발하여 해외시장개척훈련 실시(7월)
- 대학과 제조업체를 연계하여 대학내에 「Trade Incubator」 설립(10개)
- 무역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전자무역 관련 해외훈련 실시(연 20명)

## □ 해외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한 物流基盤 확충

- 중남미(파나마)·중동(두바이) 등 신흥시장과 미국(뉴욕)등 세계 무역중심지에 「중소기업 해외 공동창고」 조성 검토
- 민관 합동 중남미 현지조사 실시(3월)
- 중동 및 EU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(하반기)

## □ 국가이미지와 수출마케팅을 연계하는 「Totally New Korea」 프로젝트 추진

### ○ 1등상품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실시

-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의 일등상품 53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·업체별 지원수요를 분석하여 수출지원기관 집중 지원

예) 아리랑TV에서 1등상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그램 방영(6월)

- 일본 대기업의 부품소재 아웃소싱분을 활용한 일본 大企業 구매담당자 초청 프로그램 실시 (9월)
- 東南亞등 신흥시장의 言論社간부의 국내초청 프로그램 실시 (9월 인도·베트남, 무역협회 주관)
-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韓國 經濟 新聞과 공동으로 연중 特別企劃 記事 연재

## 5. 새로운 수출유망분야 육성 및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

### 가. 새로운 수출유망 분야 육성

#### 情報技術産業(IT)

- IT 핵심어로 분야인 電子部品産業의 世界的 部品基地化
  - 「Electro-0580 프로젝트」 추진: 국산화율 ('00) 50%→ ('05) 80%
    - \* 전자부품연구원내에 동 사업 추진단 결성(5.17)
  - 중국, 동남아 등에 대한 부품수출 확대추진(5월)
- DRAM, D-TV 등 세계시장 선도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, 수퍼지능칩, 음성인식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
- 국제협력을 통한 先進國과의 同調化 戰略 추진

#### 生物産業(BT)

- Bio Venture기업을 중심으로 産業化 기반 조성
  - 전국 지역별로 바이오벤처센터를 설치(현재 5개→8개)
  - 바이오전용펀드규모 확대(300억원 → 400억원)
- 바이오제품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核心技術 集中開發
  - 기능성 식품소재 등 10대 분야의 기술을 주식회사형으로 개발
  - 포스트 게놈시대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기술개발
- 先進國과의 戰略的 提携 및 安全性 確保體制 구축

## 極微細(나노)技術産業(NT)

### □ 戰略的 技術開發과 産業化 추진

- 전자·정보, 신소재, 생명공학 등 핵심분야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「나노技術産業化센터」 設立(5월)
- 산·학·연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「나노技術의 産業化推進戰略」을 樹立하여 본격적인 신산업 창출 도모

### □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先進國의 나노技術 移轉 促進

## 新에너지·環境産業(ET)

### □ 대체에너지 국산화를 위한 技術開發 및 實用化 基盤 擴充

- 태양광, 연료전지 등 6개분야 기술의 조기 실용화 추진
  -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 3개분야 과제 공모(상반기내)
-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청정발전기술인 연료전지발전시스템 개발 추진

### □ 집진설비, PFC 대체기술 등 親環境技術 集中開發·普及

- 전자, 자동차 등 핵심환경기술 200개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·보급('01 : 63개 개발과제 확정)
- UNIDO/UNEP가 운영하는 국제네트워크에 가입('01.3)하여 선진 기술 도입 및 보급 확산

## 나. 製造業의 高附加價値化

### □ 「既存 主力製造業의 IT接木 核心技術開發」 관련 투자 강화

- 자동차, 기계, 조선등 IT기술 적용분야가 넓은 산업의 제품 디지털화 기술을 선정, 집중지원
- 기술개발예산을 전년대비 32.6% 증액하여 신산업 창출과 함께 전통 주력제조업의 디지털화 기술개발투자도 확대
  - 산업기반기술개발예산 : ('00)3,047억원 → ('01)4,041억원

### □ 산업별로 差別化된 競爭力 強化戰略 추진

- 造船·鐵鋼産業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,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로 세계시장 선두를 유지
- 自動車·石油化學産業은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·대형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
- 機械·纖維産業은 설계·디자인 등 취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고유브랜드 개발을 강화하여 세계 틈새시장을 선점

## 다. 部品·素材産業 育成

- 部品·素材産業은 전체 제조업생산의 33.3%를 차지하는 核心 基盤産業이나, 원천기술력·제품신뢰성 저하로 세계적인 Global Sourcing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

\* 부품·소재·기계류 대일무역수지 : ('99)△108억불 → ('00)△144억불

□ Global Sourcing 대응 지원체제의 구축

- KOTRA에 「Task Force」를 설치,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
- 자동차·전자부품 등 유망 수출품목의 전자상거래기반 구축
  - 부품·소재 사이버종합센터 설치, 글로벌 사이버마켓 접속 등

□ 차세대 핵심 부품·소재 집중개발

- 매년 50여개 원천기술을 선정,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
  - \* 2000년중 차세대전자 등 45개 품목에 대해 1,060억원 기 투입

□ 부품·소재기업의 전문화·대형화를 위한 지원 강화

- 분할·합병 등기시 국민주택채권·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추진(건교부)
-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(4.7, 재경부)

□ 2010년 부품·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

- 금년 상반기중 민·관합동으로 「부품·소재 산업 발전 종합 대책(MCT-2010)」 수립·시행 예정